

그리운 할아버지... 18살 소녀의 추모전



오승윤 화백 타계 10주기
박지윤양 직접 전시회 기획
6월 11일까지 솔츠앤윙갤러리
4~11살때 그린 50여장 선배

◀박지윤 양이 할아버지 오승윤 화백과 이상실 여사를 그린 그림.

▶소녀 박지윤양이 태어난 1999년에 그린 오승윤 화백의 작품 '누드'



지난 2003년 오승윤 화백이 전시회 축하 꽃다발을 소녀 박지윤양에게 선물하고 있다.

하얀 수염, 짧은 머리카락, 안경, 얇은뺨이 의자. 박지윤(18살)이 기억하는 외할아버지 고(故) 오승윤(1939~2006) 화백 모습이다. 오 화백은 우리나라 인상주의 회화 대가인 오지호 화백의 셋째 아들이다. 아버지, 형 오승우 화백과 함께 독특한 조형미로 한국적 도상 정서를 담아내며 한국화단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생전 올곧은 성격으로 정평이 난 그였지만 친손녀에게는 그저 친구같은 존재였다. 가족들조차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화실도 손녀에게만은 늘 열려 있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장난도 치며 손녀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않았다. 외국을 나갔던 올때도 손녀 선물을 잊지 않았다. 예술가 집안이 아니랄까봐 박양이 선물로 받은 치마에는 코끼리가 코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자주 그려져 있었다.

박양이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등을 그린 스케치를 전부 모아놓고 있었다. 사과박스로 3개 분량이다. 전시장 한쪽벽면에서는 4~11살 때 그린 약 50여장을 볼 수 있다.

뽀뽀뽀 연필로 그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오 화백과 박양이 어떻게 놀고 정을 나눴는지 느낄 수 있다. 2015년 1월3일에 그린 그림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오 화백 옆으로 다른 강아지와 공을 가지고 노는 박양이 등장한다. 작품 이름은 '백구 두마리'다. 작업 중인 오 화백을 그린 그림에는 '할아버지에 화실 화이팅!'이라고 쓰여있다. 2005년에는 같이 수족관을 다녀왔는지 오 화백과 박양이 그린 물고기 그림을 나란히 볼 수 있다.

전시장 한편에는 지역사진 작가 이세현·조현택씨 도움으로 사진을 이용해 화실을 재현해 놓았다. 정면에는 이젤, 양쪽엔 창문을 배치했다. 전시장 정면에는 오 화백이 1999년도 그린 '누드'가 걸려있다. 1999년은 박양이 태어난 해다. 지난 2010년 화집이 발간됐을 때 함께 보던

외할머니 이상실 여사가 "이때부터 갈 생각을 했는 같다"고 마지막에 말하던 작품이다.

이상실 여사는 "지윤이가 추모 전시를 연다고 했을 때 '벌써 다 갔다'는 생각이 들어 기특했다"며 "전시장을 올 때마다 지윤이와 오 화백 생각이 나 울컥한다"고 말했다.

오승윤씨는 "아버지는 외출을 하시더라도 지윤이가 보고 싶어 서둘러 귀가하시곤 했다"며 "작업 중인 아버지 옆에 앉드려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지윤이 모습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할아버지는 박양 진로에도 영향을 끼쳤다. 박양은 예술가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박양은 "할아버지도 그렇고 최근 천경자 화백을 봐도 많은 예술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로스쿨에 진학해 예술가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고 권익을 찾게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문의062-223-00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관능의 카르멘을 만나다

26~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시립발레단 '카르멘&레실피드' 무대

'열정의 카르멘을 만나다.' 비제의 화려한 음악과 어우러진 관능적인 몸동작이 무대를 가득 메웠다. 치명적인 사랑에 빠져버린 두 남녀의 모습과 열정적인 음악, 불가리아 무용수 보그단 플로피뉴와 광주시립발레단 신승현이 함께 만들어낸 2인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무대였다. 갈라 콘서트에서 짧게 선보인 터라 작품 '전체'가 궁금해졌다. '카르멘' 전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발레단이 클래식 발레 '카르멘&레실피드'를 무대에 올린다. 26~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모태로 한 발레 '카르멘'은 파격적이고 신선한 안무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특히 누구에게나 친숙한 비제의 음악은 작품 감

상의 재미를 더한다. 주역으로 출연하는 보그단 플로피뉴는 23세 최연소 나이로 국립부카레스트 발레단 주역무용수로 활동했다. 유니버설발레단 발레마스터로 초청받은 스승 플로린 브린두사를 좇아 유니버설발레단 솔로이스트로 입단한 그는 올봄부터 광주시립무용단 작품에 출연중이다.

이번에 함께 선보이는 또 하나의 작품은 '카르멘'과 정반대의 느낌을 주는 서정발레 '레 실피드'다.

쇼팽의 아름다운 음악이 인상적인 '레 실피드'는 클래식 발레 100년 역사의 고전미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특별한 줄거리 없이 '폴로네이즈 A 장조 작품번호 40', '마주르크 D장조 작품번호 33' 등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쇼팽의 피아노곡들에 맞춰 앙상블·솔로·듀오 등이 이어진다.

티켓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전석 학생 50%할인)이다. 예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www.gjart.net) 문의 062-522-8716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구 목요일연국악한마당 '팔죽 할멈과 호랑이' 공연

26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제493회 목요일연국악한마당 행사로 '팔죽 할멈과 호랑이' 공연을 개최한다. 26일 오후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전통연희놀이연구소가 공연하는 '팔죽 할멈과 호랑이'는 전통연희인 탈춤과 전래 동화를 접목한 작품으로 '말뚝이 춤', '나비 찾는 할멈', '호랑이와의 만남', '팔죽 먹는 친구들', '호랑이와의 결전', '호랑이의 변신' 등 6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을 교육하고 전통연희 놀이를 보급하기



위해 1999년 설립한 단체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양크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경 축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일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연락처 : (062) 720-2872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성
잡종지 15,628㎡(5,167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 / 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